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680.3	16.7	125,500	-5.3	-2.7	31.8	30.8	87.5	41.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294.8	20.5	386,500	0.1	-0.8	132	1.4	52	43	0.7	0.6	14.1	14.7
현대엘렉트릭	697.1	4.7	68,300	-2.4	6.4	166	-40.1	65	5.6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155.5	7.9	117,000	-2.9	1.7	-2.9	-30.8	74	5.5	0.8	0.7	11.7	13.9
삼성중공업	4,605.3	18.0	7,310	-1.9	-9.4	175	13.0	46.1	22.9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3,334.1	9.6	31,100	-1.9	-6.9	293	123.7	78	16.1	0.9	0.9	12.4	5.4
현대미포조선	1,954.0	9.5	97,700	-1.2	-1.3	209	24.1	21.1	152	0.7	0.7	3.6	4.8
한진중공업	215.8	6.9	2,035	-1.9	-21.7	-29.3	-38.5	40.9	102	0.3	0.3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729.4	22.6	100,500	0.0	-11.5	312	84.7	17.7	17.3	2.4	2.2	14.6	13.3
두산밥캣	3,889.7	26.4	38,800	0.9	6.0	285	9.8	142	13.4	1.1	1.0	7.4	7.6
현대로템	2,337.5	1.8	27,500	-0.9	-10.9	143	46.7	35.5	242	1.6	1.5	4.5	6.3
하이록코리아	304.3	48.7	22,350	-4.3	-5.9	-4.5	-0.7	10.1	9.3	0.9	0.8	8.8	9.0
성광밴드	348.9	15.9	12,200	-3.6	-4.3	146	22.2	1,078.5	43.7	0.8	0.8	0.1	1.8
태광	351.1	12.8	13,250	-2.9	-7.3	256	10.0	79.1	3.86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464.3	14.2	12,500	-3.1	-16.1	-10.1	-18.6	21.4	7.7	0.4	0.4	2.7	6.0
두산인프라코어	1,875.5	21.0	9,010	-1.9	-2.8	-2.3	3.7	6.0	5.6	1.0	0.9	17.5	16.0
HSD에프진	143.8	4.3	4,365	-1.8	-3.2	167	69.9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138.7	10.3	32,200	0.0	-29.6	-6.5	-32.1	29.5	22.1	2.8	2.5	9.3	1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83.1	11.6	28,500	-1.0	6.7	234	-19.8	40.5	20.1	0.7	0.7	1.7	3.4
LIG넥스원	760.1	8.3	34,550	0.4	1.0	-1.7	-42.2	37.0	17.7	1.2	1.2	3.4	6.8
태웅	233.1	4.8	11,650	-2.1	-19.7	-202	-39.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14.2	5.5	7,940	-0.4	0.5	29.5	57.2	-24.4	25.6	2.9	2.7	-11.0	10.9
한국카본	302.5	13.4	6,880	3.5	1.5	19.9	28.4	106.7	23.8	1.0	0.9	0.9	4.0

주: 카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IMO confirms ban on carrying high sulphur fuel

IMO는 MEPC 73차 회의에서 2020년 3월 1일까지 선박 황산화물 규제를 준수하도록 결정했다고 알려짐. 또한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에만 활 핵유량 0.5%가 넘는 연료를 적재할 수 있도록 결정함. IMO는 이번 주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Marpol Annex VI' 개정안을 채택할 예정임. (TradeWinds)

고부가 LNG선 시장..."韓 진화 vs 中 퇴보"

스플래시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 'CESI 글래스스 토후'가 시운전 2년여만에 폐선된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지난 6월부로 더는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재정비를 포기하고 폐선을 결정함. 후동중화조선은 중국에서 LNG선을 가장 많이 건조한 조선사임. (EBN)

Polaris sells two more capesize bulkers for demolition

Polaris Shipping은 17.1만DWT급과 12.8만DWT급 Capesize 별크선 2척을 폐선하기 위해 매각했다고 알려짐. 폐선가는 ldt 당 467달러로, 총 1,770만달러로 알려짐. Polaris는 선대 현대화를 위해 지난 9월에도 2척을 폐선했고, 현재 현대중공업에 별크선 17척을 수주잔고로 보유함. (TradeWinds)

Fredriksen moving to stealthily slide up LNG newbuilding tally

노르웨이 선박왕 John Fredriksen은 현대중공업과 옵션을 보유한 LNG선 2척 발주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짐. 관계자에 따르면 Fredriksen은 소유한 회사 Seatankers를 통해 2021년 인도로 17.4만CBM급 LNG선 발주를 계획함. 이번 주 LNG선 단기 용선료는 하루 20만달러에 기록됨. (TradeWinds)

현대오일뱅크, 연내 IPO 사실상 무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내년 초 공모일정을 검토한다고 알려짐. 거래소 심사승인을 받았지만, 감리 절차가 상당 기간 길어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알려짐. 감리가 당장 마무리 되어도 공모를 실시하기엔 부담감이 큰 상황임. 예비심사 승인효력 최장 6개월을 감안하면 내년 2월안에 마무리될 전망임. (더밸)

1조원 긴급 수혈한 현대상선, 보릿고개 넘길까

현대상선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6천억원과 전환사채(CB) 4천억원 등 총 1조원을 발행할 예정임. 산업은행은 이를 인수한 뒤 내년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같은 조건으로 절반을 매각할 예정임. 현대상선은 8,500억원을 시설자금으로, 나머지 1,5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임. (조선비즈)